

# 광양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한 빈틈없는 종합대책 마련

## 2023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 가져

광양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근 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생산물 판촉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안전관리 철저 ▲비상진료 및 감염병 확산 예방

체계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와 추석 명절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6명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병·의원, 문 여는 약국 지정, 가스판매업소, 수도·가로등·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명절 기간 중 당번을 지정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과 대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주순선 광양시 부

시장은 “연휴 기간이 6일로 긴 명절이 되는 만큼 연휴 전, 연휴 기간, 연휴 이후로 나눠 해당 부서에서는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돌발 상황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면서 “연휴 기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 곡성,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 용역업체, 단계별로 진행된 연구 추진 경과 보고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곡성군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에 시행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의 주된 목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찾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용역업체는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된 연구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실무위원회(TF)를 구성해 연구 방향을 설정했고, 5월에는 다 지자체를 방문해 일자리 관련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6월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곡성군 내 여러 부서의 일자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주요 주제들과 심층면접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곡성 일자리 정책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곡성군의 일자리 기본계획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집중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 곡성군 일자리의 방향성과 방향성을 모색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종보고회까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제시된 의견의 보완·반영으로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성료

구례군에서 열린 ‘2023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2023 IRONMAN GURYE KOREA)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례군 일원 WTC 공인코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4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본 대회는 지리산호수공원에서 시작됐다. 선수들은 수영(3.8km), 바이클(180km), 마라톤(42.2km) 3개 종목, 226km의 장대한 레이스를 펼쳤다.

남자부에서는 중국의 Qisheng Li 선수(8시간 41분)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지현 선수(10시간 53분)가 가장 좋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남자 18~24세·25~29세·30~34세 등 10개 부문과 여자 25~29세·30~34세·35~39세 등 9개 부문 완주자 중 상위자에게는 2024년 아이언맨 월드챔피언십 참가권이 주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1천600여 명의 군민과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김순호 군수는 “1천600여 명의 군민 자원봉사자 덕분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경기 진행을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홍경석 기자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명 시장은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국회를 방문,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만·박상혁 의원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 정기명 여수시장, 내년 국비 확보 ‘배수의 진’

2024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총력전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명 시장은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를 방문,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만·박상혁 의원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추가 반영과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실을 찾아 상임위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국동항 건설공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사업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민 기자

## 순천시, 추석 전통시장 수산물 ‘안전’

### 방사능오염검사 수시 측정으로 불안감 해소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달 들어 주요 수산물 취급점에서 검체를 채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방사선 오염물질인 요오드, 세슘이 모두 불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요오드와 세슘은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 지표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로써 ‘적합’ 판정은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뜻이다.

또한, 시는 간이 방사능 측정기(Ranger EXP)를 역전시장 및 아랫장, 옷장 등 전통시장에 배부하고 수산물과 수족관까지 수시로 검사

하고 있다. 간이 방사능 측정기는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자연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은 0.27~0.4 μSv/h이다. 간이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방사선에 오염된 수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연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수산물 유통을 중지시킨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여수지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한 상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손님들이 막연한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주니 후련하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번

##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名品굴비

# 축가네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 경 룰**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룰

